

# 또래동조성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SNS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 분석

## Peer Conformity and SNS Peer-Bullying among Upp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Moderating Role of Moral Disengagement

김부경, 한윤선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Bu Kyung Kim(bjko2@skku.edu), Yoonsun Han(yoonsunhan@skku.edu)

### 요약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또래괴롭힘을 서로 알고 지내는 친구사이에서 SNS를 통하여 발생하는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온라인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또래동조성이 높은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학생 375명을 대상으로 또래동조가 온라인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절회귀분석 결과 반사회적 또래동조성이 높아질수록 온라인 또래괴롭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사회적 또래동조성과 온라인 또래괴롭힘의 관계에 있어 도덕적 이탈이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또래괴롭힘에 대한 또래동조의 악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인성교육을 통한 도덕적 이탈의 감소를 제안한다. 이를 통하여 초기 청소년의 반사회적 또래동조성을 감소시켜 효과적인 온라인 또래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중심어 : | 온라인 또래괴롭힘 | 또래동조 | 도덕적 이탈 | 청소년 |

### Abstract

This research attempted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SNS peer bullying and analyzed the moderating effect of moral disengage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conformity and SNS peer bullying. We us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test our hypotheses. Results indicated that antisocial peer conformity is positively related with SNS peer-bullying. The effect of antisocial conformity on SNS peer-bullying was higher for those who have higher moral disengagemen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providing educational programs that target moral disengagement as a strategy to decrease the negative role of antisocial conformity on SNS peer-bullying.

■ keyword : | SNS Peer Bullying | Peer Conformity | Moral Disengagement | Adolescence |

\*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NRF-2015R1C1A2A01055203)

\* 본 연구는 제 1저자의 석사 학위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접수일자 : 2016년 07월 25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8월 30일

수정일자 : 2016년 08월 28일

교신저자 : 한윤선, e-mail : yoonsunhan@skku.edu

## I. 서론

최근 급속한 스마트폰 및 SNS(Social Network Service) 시장의 발달로 인하여 청소년들에게 SNS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1]. 『2014년 모바일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중 상당수인 65.0%(전년대비 14.6% 증가) 모바일을 통하여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연령으로는 20대가 87.6%로 가장 많았으며 10대가 78.1%로 뒤를 이었다[2]. 이를 통하여 많은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SNS를 사용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SNS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학교폭력의 또 다른 형태 중 하나로 SNS를 이용한 온라인 상의 괴롭힘이 증가하고 있다[3]. 실제로 최근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활용한 또래괴롭힘 사례가 증가하였으며, 카카오톡 왕따라는 말의 줄임말인 ‘카따’나 카카오톡 그룹채팅에서 다수의 청소년이 특정 한 명을 괴롭히는 것을 의미하는 ‘떼카’ 등의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온라인 또래괴롭힘이 급증하고 있다[4]. 청소년폭력 예방재단의 『2013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상의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청소년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은 작년의 4.5%에서 세배 이상 증가한 14.2%로 조사되었으며 가해 경험 또한 작년의 4.1%에서 6.0%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폭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비율은 6.1%로 매우 낮았다[5].

이처럼 학교폭력의 일환으로써 SNS를 이용한 온라인 또래괴롭힘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많은 선행 연구들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학교폭력의 일환으로써의 또래괴롭힘과 익명성을 바탕으로 하는 온라인 괴롭힘, 즉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을 혼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온라인 또래괴롭힘을 광의적인 온라인 괴롭힘과 구분 짓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온라인 또래괴롭힘은 다른 온라인 괴롭힘보다 SNS 상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다. 청소년폭력 예방재단[5]에 따르면 온라인 또래괴롭힘 피해자 중 76.1%가 SNS 상에서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

답하여 온라인 또래괴롭힘의 수단으로써 SNS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청소년들에게 SNS는 다른 온라인 공간보다 상호작용이 높은 관계 중심의 매체이다. 다수의 SNS에서 서로 친구로 등록된 사람들끼리 게시물을 공유할 수 있으며, 친구들끼리 전달 및 추천 등의 기능을 통하여 다른 인터넷 공간보다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며 게시물이 친구를 맺은 집단 안에서 빠르게 퍼질 수 있다[6]. 셋째, 온라인 또래괴롭힘은 서로 알고 지내는 학교 친구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익명성을 포함하는 온라인 괴롭힘과는 매우 다른 경향성을 보인다. 넷째, 온라인 또래괴롭힘은 온라인 괴롭힘보다 오프라인에서의 신체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7][8]. 위와 같은 이유로 SNS 상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또래괴롭힘, 즉 SNS 또래괴롭힘은 다른 온라인 괴롭힘과는 다른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 또래괴롭힘은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요인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광범위한 정의로 온라인 괴롭힘을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들은 익명성, 비대면성 등 인터넷 공간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주로 진행해 왔다[9][10]. 그러나 온라인 또래괴롭힘은 익명성을 띄고 있지 않는 반면 학교폭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온라인 또래괴롭힘은 온라인 괴롭힘과 구분되어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요인들이 온라인 또래괴롭힘에 있어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또래괴롭힘에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또래동조성을 꼽을 수 있다[11]. 또래동조성은 청소년기의 또래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것에서 기인한다. 즉,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오면서 개인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타인이 부모에서 또래로 전이되어 또래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12][13]. 청소년기에 또래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는 현상은 많은 행동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중에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또래괴롭힘이다[14][15]. 또래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또래집단에 소속되자 또래집단으로부터 승인되는 행동 양상을 보이는 행위, 즉

또래동조성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청소년들이 반사회적 행위에 쉽게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또래동조성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또래괴롭힘에 유사한 영향력을 미친다[16]. 인터넷이라는 매체 특성 상 개인이 충동성을 억제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쉽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내집단에게는 쉽게 동조하고 외집단에게는 강하게 배척하는 행동양상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17].

구체적으로 또래동조성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괴롭힘에 악영향을 주는 이유를 인터넷의 특징과 연결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인터넷의 비대면적 특성이 대면적 상황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개인의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게 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온라인 상의 또래괴롭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되어 왔다[18][19]. 둘째, 인터넷 공간 속에서 개인은 탈억제(disinhibition)에 의하여 현실 공간에서 보다 더 개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되며[20], 이러한 현상이 온라인 상의 또래괴롭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온라인 상에서 개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공간에서보다 자신의 생각 및 행동을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들어내게 되며 이러한 온라인의 특성은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과도 연관 지을 수 있다. 도덕적 이탈은 학교폭력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21][22], 온라인 공간에서의 또래괴롭힘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23][24]. 도덕적 이탈은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도덕적 이탈의 정도에 따라 또래동조성이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력을 증폭 또는 완화시킬 수 있다. 도덕적 이탈 현상은 온라인에서 증대되어 온라인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조적 또래괴롭힘의 가해 행동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2].

요컨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최근 들어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도구로 사용한 온라인 상의 또래괴롭힘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 또래괴롭힘은 언제 어디서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가 심각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19][25]. 뿐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의 비대면적 특성으로 인해 온라인 인터넷 공간 속에서 청소년은 탈억제에 의하여 현실세계에서 보다 더 개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된다[20].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도덕적 이탈 기회의 증가로 또래동조의 영향이 오프라인에서보다 온라인에서 더욱 클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도덕적 이탈로 인해 증가한 온라인 또래괴롭힘 및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즉 보호요인으로 도덕교육이 제안되고 있다[26].

특히 최근 스마트폰 및 컴퓨터 이용의 자연령화와 함께 온라인 상의 또래괴롭힘 또한 자연령화되는 추세이다. 나아가 나이가 어릴수록 사이버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없이 또래괴롭힘을 단순한 놀이로 인식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27].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또래괴롭힘은 새로운 학교폭력의 형태로 인식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온라인 또래괴롭힘에 관한 선행연구는 중기 혹은 후기 청소년 시기에 집중되어 있어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인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래괴롭힘을 예측하는 요인 중 하나로 또래동조성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상당수의 온라인 또래괴롭힘이 SNS상에서 발생하는 추세[5]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SNS 또래괴롭힘에 대해 초점을 둘 것이며, 본 조사에서 사용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대상의 성별과 학년 분포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특히 부각되는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이 또래동조성과 SNS를 이용한 온라인 또래괴롭힘 간의 관계에서 갖는 조절효과를 파악할 것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또래괴롭힘의 예방책으로써 SNS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도덕교육의 효과적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5학년 및 6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또래 동조성이 초기 청소년기에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12][13]. 아울러 SNS의 사용 및 온라인 또래괴롭힘의 저연령화[27]로 인하여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또래괴롭힘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조사에 앞서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학생 각각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과 문항 이해도 및 설문응답에 대한 태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문항에 응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대 40분으로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각 문항과 관련된 특별한 질문 없이 설문에 임하였다. 이에 용어나 문장 구성이 초기 청소년의 문항 이해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여 문항을 수정하지 않고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배포된 총 400부의 설문지 중, 연구에 동의하지 않은 응답과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여 총 375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2. 연구 도구

### 2.1 SNS 또래괴롭힘

SNS 또래괴롭힘 척도로 Willard[28]의 사이버괴롭힘 하위 유형을 안수빈[8]이 재구성한 내용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해 및 피해 경험을 묻는 SNS 또래괴롭힘 척도에서 가해 경험을 묻는 5점 Likert 척도 10문항(예시: “나는 SNS에서 욕설을 사용하여 친구를 비난한 적이 있다.”, “나는 SNS에서 친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린 적이 있다.”)만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분석 결과 가해 경험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8로 나타났다.

### 2.2 또래동조성

또래동조성 척도로 Berndt[12]의 척도를 오경희[29]가 번역, 수정하고, 이를 청소년들의 실정에 맞게 김은진[30]와 오민석[31]이 수정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또래동조성 척도는 중립적 행동에 대한 동조성을 묻는 8문항(예시: “학교가 끝난 후, 친구들이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가자고 합니다. 당신은 친구들과 게임을 하러

가겠습니까?”)과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동조성을 묻는 8문항(예시: “당신과 친구들은 미술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힘이 약한 아이들에게 준비물을 빼앗아오자고 합니다. 당신은 친구들과 함께 준비물을 빼앗아 오겠습니까?”), 총 16문항으로 구성된 6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중립적 행동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68이며, 반사회적 행동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72이었다.

### 2.3 도덕적 이탈

도덕적 이탈 척도는 Bandura 등[32]이 개발한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Scale를 김경연과 하영희[33]가 번안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총 8개의 하위 요인과 총 32개의 문항으로 구성 도덕적 이탈 척도는 5점 Likert 척도이다(예시: 다른 아이를 밀치거나 떠미는 것은 일종의 장난이다.”). 본 연구에서 도덕적 이탈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는 .85이었다.

##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Program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 사회학적 분포를 밝히기 위하여 기술통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둘째, 또래동조성이 SNS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과, 또래동조성과 SNS 또래괴롭힘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년과 성별에 따른 또래동조, 도덕적 이탈과 온라인 또래괴롭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초등학교 고학년의 또래동조성, 도덕적 이탈과 온라인 또래괴롭힘의 평균과 표준편차

성별	남자			여자		
	학년 (n)	M (SD)	M (SD)	전체 (n)	M (SD)	M (SD)
5학년	5 (85)	2.65 (0.63)	2.92 (0.59)	5 (114)	2.48 (0.58)	2.76 (0.61)
6학년	6 (93)	2.92 (0.59)	2.79 (0.62)	6 (83)	2.76 (0.61)	2.60 (0.60)
전체	117 (197)	2.12 (0.50)	1.96 (0.37)	2.05 (0.48)	2.00 (0.42)	1.19 (0.41)
도덕적 이탈	2.04 (0.52)	2.20 (0.47)	2.12 (0.50)	1.96 (0.37)	2.05 (0.48)	2.00 (0.42)
온라인 또래괴롭힘	1.19 (0.42)	1.41 (0.67)	1.31 (0.57)	1.13 (0.24)	1.28 (0.55)	1.19 (0.41)

또래동조는 남학생이(M=2.79; SD=0.62) 여학생(M=2.60; SD=0.60)보다 높았다. 학년별로는 5학년 남학생(M=2.65; SD=0.63)과 여학생(M=2.48; SD=0.58)이 6학년 남학생(M=2.92; SD=0.59)과 여학생(M=2.76; SD=0.61)보다 더 낮은 또래동조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이탈 또한 남학생(M=2.12; SD=0.50)이 여학생(M=2.00; SD=0.42)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학년별로는 5학년 남학생(M=2.04; SD=0.52) 및 여학생(M=1.96; SD=0.37) 각각 6학년 남학생(M=2.20; SD=0.47) 및 여학생(M=2.05; SD=0.48)보다 낮았다. 온라인 또래괴롭힘은 남학생(M=1.31; SD=0.57)이 여학생(M=1.19; SD=0.41)보다 높았다. 학년별로도 온라인 또래괴롭힘에 있어 6학년 남학생(M=1.41; SD=0.67) 및 여학생(M=1.28; SD=0.55)으로 5학년 남학생(M= 1.19; SD=0.42) 및 여학생(M=1.13; SD=0.24)으로 다소 높았다.

## 2. 또래동조성과 온라인 또래괴롭힘 간의 관계에 있어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

초등학교 고학년의 또래동조성과 온라인 또래괴롭힘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조절회귀분석(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조절회귀분석에서 상호작용항간에 높은 상호 관련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중심화를 통하여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였다. 평균중심화 이후에 변수 간의 VIF가 1.08-1.20으로 10 미만이 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34].

먼저 모형 1에서는 학년과 성별을 통제한 후 온라인 또래괴롭힘에 또래동조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각 하위 요인별로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모형 2에서는 모형 1에 추가적으로 도덕적 이탈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 3에서는 모형 2에 또래동조 하위 영역 별로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를 추가하여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초등학교 고학년의 또래동조성과 온라인 또래괴롭힘 간의 관계에 있어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SE	B	SE	B	SE
독립변수						
중립적 또래동조	0.01	0.03	0.01	0.03	0.01	0.03
반사회적 또래동조	0.25***	0.04	0.20***	0.04	0.16***	0.04
도덕이탈			0.28***	0.05	0.25***	0.05
조절변수						
중립적 또래동조 X 도덕이탈					-0.10	0.06
반사회적 또래동조 X 도덕이탈					0.25***	0.06
통제변수						
학년 <sup>a</sup>	0.09	0.05	0.08	0.05	0.08	0.05
성별 <sup>b</sup>	-0.04	0.05	-0.02	0.05	-0.02	0.05
R <sup>2</sup>	.17		.23		.26	
F	19.089***		21.938***		18.891***	

\* p < .05. \*\*p < .01. \*\*\*p < .001. <sup>a</sup>: 5학년=0; 6학년=1, <sup>b</sup>: 여자=0; 남자=1

모형 1에서는 또래동조의 하위 유형이 온라인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먼저 통제변인과 또래동조성의 하위 유형인 중립적 또래동조와 반사회적 또래동조를 투입하였다. 반사회적 또래동조성은 온라인 또래괴롭힘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b = 0.25, p < .001). 반면 통제변인인 학년과 성별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못하였으며, 온라인 또래괴롭힘에 있어서 중립적 또래동조성은 온라인 또래괴롭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를 통하여 또래동조성 중에서 반사회적 또래동조성이 높을수록 온라인 또래괴롭힘에 더 참여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온라인 또래괴롭힘에 대한 본 모형의 설명력은 약 17%였으며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

었다.

모형 2에서는 기존 모형에 도덕적 이탈을 추가하여 온라인 또래괴롭힘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모형 2의 설명력은 23%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래동조 중에서 반사회적 또래동조성은 온라인 또래괴롭힘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으나( $b = 0.20, p < .001$ ), 중립적 또래동조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반사회적 또래동조성이 높을수록 온라인 또래괴롭힘 가해경험도 증가하지만 중립적 또래동조성은 온라인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도덕적 이탈이 온라인 또래괴롭힘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b = 0.28, p < .001$ ), 이는 도덕적 이탈이 높을수록 온라인 또래괴롭힘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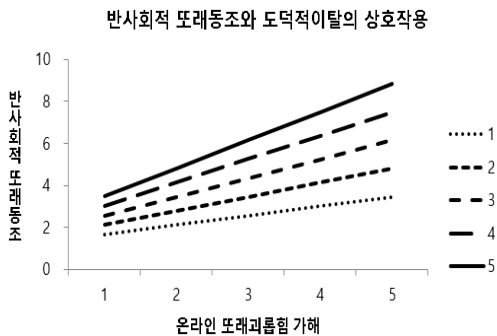


그림 1. 반사회적 또래동조성과 도덕적 이탈에 따른 온라인 또래괴롭힘

마지막으로 모형 3에서는 또래동조성과 온라인 또래괴롭힘간의 관계에 있어 도덕적 이탈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또래동조성 하위 변인별로 도덕적 이탈과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모형 3은 온라인 또래괴롭힘 변량을 26% 설명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유의한 상호작용항을 바탕으로 [그림 1]을 제시하였다. 중립적 또래동조성과 도덕적 이탈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못하였으나, 반사회적 또래동조성과 도덕적 이탈의 상호작용항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b = 0.25, p < .001$ ) 결과를 보여, 도덕적 이탈이 반사회적 또래동조성과 온라인

인 또래괴롭힘간의 관계에 있어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의 1-5는 도덕적 이탈의 수준을 나타내며 도덕적 이탈이 높을수록 반사회적 또래동조와 온라인 또래괴롭힘 가해간의 정적관계가 커짐을 알 수 있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최근 급속한 스마트폰의 사용 증가와 SNS의 발달로 인하여 학교폭력의 일환으로 새롭게 등장한 SNS 또래괴롭힘, 즉 온라인 또래괴롭힘을 파악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또래동조가 온라인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과, 나아가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괴롭힘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온라인 괴롭힘 즉, 사이버 불링을 사이버 스토킹이나 사이버 성폭력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광의적인 의미로 정의하였다[7]. 반면 본 연구에서는 SNS를 이용한 온라인 또래괴롭힘을 서로 알고 있는 또래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학교폭력의 일환으로써의 또래괴롭힘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 학교폭력의 일환으로써 또래괴롭힘은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다른 괴롭힘과는 달리 익명성이 없고, 오프라인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16] 기존의 광의적인 온라인 괴롭힘과 구분되어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NS를 이용한 온라인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기존의 오프라인 또래괴롭힘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또래동조성과 도덕적 이탈을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여 변인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하여 온라인 또래괴롭힘의 의미를 확실히 하고 온라인 또래괴롭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초등학교 고학년의 SNS를 이용한 온라인 또래괴롭힘에 반사회적 또래동조성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립적 또래동조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또래가 제안했을 때 이에 동조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반면 반사회적 또래동조성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거나 규칙을 위반하는 등의 자신이 수행하기 꺼리는 행동을 또래가 제안했을 때 이에 동조하는 것을 의미한다[12]. 반사회적 또래동조성이 온라인 또래괴롭힘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온라인이라는 가해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살펴볼 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청소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감독은 감소할 뿐 아니라 비대면적 특성으로 인하여 책임감도 상대적으로 줄어든다[9]. 이러한 인터넷 공간의 특성은 청소년의 도덕적 가치 판단을 방해하여 반사회적 또래동조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온라인 또래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대상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는 점 또한 반사회적 또래동조성과 온라인 또래괴롭힘 간의 정적 관계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뒤야할 부분이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또래동조가 극대화되는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된다[12][13].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내집단에 대하여 쉽게 동조하며 외집단에게는 강한 배타적 성향을 보인다[17].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이 비록 집단의 의견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될지라도 집단에서 배척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부정적 강화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잘못된 행동 양상을 택하게 한다[34]. 특히 초기 청소년들의 가해행위는 집단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어 책임감을 분산시켜 청소년들이 SNS를 이용한 온라인 또래괴롭힘에 더욱 쉽게 가담하게 할 수 있다[11].

셋째,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는 중립적 또래동조와 온라인 또래괴롭힘의 관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은 반면 반사회적 또래동조와 온라인 또래괴롭힘의 관계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도덕적 이탈은 도덕적 가치와 행동의 불일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처벌적 정서를 피하기 위하여 개인이 자신의 인지를 왜곡함으로써 도덕적 가치를 의식적으로 재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36]. 도덕적 이탈이 강한 청소년들은 이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다. 반사회적 또래동조는 중립적 또래동조와는 다르게 도덕적 가치판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12]. 이처럼 반사회적 또래동조는 도덕적 가치판단을 수반하는 동조의 성향이기에 때문에 도덕적 인지왜곡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도덕적 이탈현상이 높은 청소년이라면 반사회적 또래동조 성향 또한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도덕적 이탈의 역할은 오프라인 보다 온라인상에서 더욱 강하게 작용될 것이다. 온라인의 비대면적 공간은 오프라인의 대면적 공간에서 보다 비언어적 표현의 전달이 부족해지므로 낮은 사회적 실재감을 부여하기 때문이다[9].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반사회적 또래동조성은 도덕적 이탈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온라인 또래괴롭힘을 예측하는데 있어 반사회적 또래동조와 도덕적 이탈의 상호작용을 검증함으로써 반사회적 또래동조성이 도덕적 이탈로 인하여 강화 혹은 완화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SNS를 이용한 온라인 또래괴롭힘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덕적 이탈 성향 감소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한다. 첫째, 선행연구[14]와 본 연구의 검증을 통하여 온라인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중립적 또래동조가 아닌 반사회적 또래동조로, 온라인 또래괴롭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반사회적 또래동조를 중점적으로 다뤄줄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립적 또래동조와 반사회적 또래동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도덕적 가치판단 유무에 있기[12][13] 때문에 반사회적 또래동조를 낮추기 위해서는 도덕적 이탈 조절능력 향상 등 도덕적 가치판단에 중점을 둔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Bandura에 따르면 도덕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달하는 것이므로 도덕적 이탈 또한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발생한다[37]. 이에 초기 청소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도덕 교육을 실시한다면 도덕적 이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중립적 또래동조는 청소년의 자연스러운 발달적 특성이기 때문에 예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긍정적인 기능을 훼손시키는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38]. 이에 반해, 부정적으로 기능하는 반사회적 또래동조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의 시행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들의 도덕적 이탈현상을

최소화함으로써 반사회적 또래동조가 온라인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기 위한 SNS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다. SNS를 이용한 온라인 또래괴롭힘은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또래괴롭힘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또래괴롭힘에 집중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39]. 아울러 SNS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다수의 온라인 또래괴롭힘이 SNS상에서 발생하는 만큼 SNS라는 매체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또래괴롭힘 예방교육은 주로 오프라인 또래괴롭힘에 초점을 두고 있고 온라인 또래괴롭힘에 대한 교육은 거의 없어 이를 예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40][41]. 또한, 대부분의 인터넷 윤리 교육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심리적 혹은 도덕적 특성에 집중하기보다는 정보화의 역기능에만 집중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주입식 강의를 통하여 단기간에 정보 윤리 의식을 키우고자 하고 있다[19]. 그러나 도덕적 이탈을 방지하여 SNS를 이용한 온라인 또래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도덕적 민감성과 공감능력을 발달시켜줄 수 있으며 도덕적 동기와 행동기능 또한 발달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타인의 처지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공감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면 도덕적 이탈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도덕적 동기와 민감성을 길러줌으로써 바람직한 도덕적 정체성을 형성한다면, 이는 SNS를 이용한 온라인 또래괴롭힘 가해 행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현상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저항하는 행동으로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0]. 이에 온라인 또래괴롭힘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SNS라는 매체를 실제로 사용해보면서 매체의 특성에 맞는 SNS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 효과적인 온라인 또래괴롭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75명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와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무선 표집을 통하여 한국 청소년들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형 설문으로 자료가 수집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의 영향력이 과장 혹은 축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학교 수업시간에 교사가 설문을 배포, 수집하였다. 비록 무기명으로 설문이 진행되었고 설문지에도 이를 명시하였지만 교사에 대한 의식 때문에 설문의 신뢰도가 떨어졌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지표 및 자료조사환경 조성을 통하여 설문의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1] 옥경영, 홍재원, “청소년의 사회적 네트워크에서의 지위 (social standing) 가 온라인 사회적 활동 (social activity) 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5호, pp.370-379, 2012.
- [2]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4.
- [3] 조운오, “사이버불링 피해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0권, 제10호, pp.117-142, 2013.
- [4] 이아름, 이윤주, 양현일, “고학년 초등학생의 공격성과 언어폭력성이 사이버 불링 피해 및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제15권, 제6호, 2014.
- [5]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3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3.
- [6] 한국정보화진흥원, 소셜미디어 부작용 유형 및 대응방향,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 [7] S. Hinduja and J. W. Patchin, “Offline consequences of online victimization: School violence and delinquency,” Journal of School Violence, Vol.6, No.3, pp.89-112, 2007.
- [8] 안수빈, 부모애착과 또래동조성이 청소년의 sns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2014.
- [9] C. N. Gunawardena and F. J. Zittle, "Social presence as a predictor of satisfaction within a computer mediated conferencing environment," *American Journal of Distance Education*, Vol.11, No.3, pp.8-26, 1997.
- [10] 유상미, 김미량, "실천적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위한 사이버 일탈행위 분석,"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제13권, 제15호, pp.51-70, 2010.
- [11] 유귀순, *공격성과 동조성이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12] T. J. Berndt, "Developmental changes in conformity to peers and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15, No.6, p.608, 1979.
- [13] B. B. Brown, M. J. Lohr, and E. L. McClenahan, "Early adolescents' perceptions of peer pressur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6, No.2, pp.139-154, 1986.
- [14] 조윤주, 정옥분, "청소년의 동조적 또래괴롭힘에 대한 매개된 조절모형 검증," *人間發達研究*, 제16권, 제3호, 2009.
- [15] 이현주, 권수정, "초등학생의 따돌림 경험이 따돌림 동조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1호, pp.205-214, 2014.
- [16] 안수빈, 이강이, "부모애착과 또래동조성이 청소년의 sns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人間發達研究*, 제21권, 제3호, pp.51-67, 2014.
- [17] 나은영, 차유리, "인터넷 집단극화를 결정하는 요인들: 공론장 익명성과 네트워크 군중성 및 개인적, 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6권, 제1호, pp.103-122, 2012.
- [18] R. M. Kowalski, S. Limber, S. P. Limber, and P. W. Agatston, "Cyberbullying: Bullying in the digital age," *John Wiley & Sons*, 2012.
- [19] J. W. Patchin and S. Hinduja, "Bullies move beyond the schoolyard a preliminary look at cyberbullying,"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Vol.4, No.2, pp.148-169, 2006.
- [20] 추병완, "온라인에서의 도덕적 이탈과 인터넷 윤리교육의 과제," *윤리교육*, 제87권, 제0호, pp.119-141, 2012.
- [21] C. D. Pomari and J. Wood, "Peer and cyber aggression in secondary school students: The role of moral disengagement, hostile attribution bias, and outcome expectancies," *Aggressive Behavior*, Vol.36, No.2, pp.81-94, 2010.
- [22] 서미정, "도덕적 이탈 및 도덕적 정서가 또래괴롭힘에 대한 가해동조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제34권, 제6호, pp.123-138, 2013.
- [23] L. Lazuras, V. Barkoukis, D. Ourda, and H. Tsorbatzoudis, "A process model of cyberbullying in adolescenc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29, No.3, pp.881-887, 2013.
- [24]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청소년 사이버 일탈행동에 대한 부모, 친구, 도덕적이탈 및 관계효능감의 영향," *교육심리연구*, 제25권, 제3호, pp.617-645, 2011.
- [25] 임상수, 김국현, 문성학, "사이버 불링의 이해와 법률적, 교육적 대응책," *한국윤리교육학회 학술대회 2013*, pp.26-60, 2013.
- [26] 추병완, "도덕과 교육을 통한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예방 방안," *교육과정평가연구*, 제17권, 제1호, pp.97-119, 2014.
- [27] 정한라, *국내외 사이버폭력 사례 및 각국의 대응 방안*, KISA Report, 2013.
- [28] N. E. Willard, *Cyberbullying and cyberthreats: Responding to the challenge of online social cruelty, threats, and distress*, Center for Safe and Responsible Internet Use, Research Press, 2006.
- [29] 오경희, *아동의 또래동조성 발달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30] 김은진, *청소년의 문화성향과 내외통제성 및 또래동조성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31] 오민석, *초등학생의 또래갈등과 또래동조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32] A. Bandura, C. Barbaranelli, G. V. Caprara, and C. Pastorelli,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in the exercise of moral ag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1, No.2, p.364, 1996.
- [33] 김경연, 하영희, "죄책감, 도덕적이탈, 및 친구의 규칙위반성향과 청소년의 규칙위반행동,"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16권, 제2호, pp.39-52, 2003.
- [34] R. Hocking and O. Pendleton, "The regression dilemma," *Communications in Statistics-Theory and Methods*, Vol.12, No.5, pp.497-527, 1983.
- [35] H. Leventhal, R. Singer, and S. Jones, "Effects of fear and specificity of recommendation upon attitudes an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2, No.1, pp.20-29, 1965.
- [36] A. Bandur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Englewood Cliffs, 1986.
- [37] A. Bandura, "Selective moral disengagement in the exercise of moral agency," *Journal of Moral Education*, Vol.31, No.2, pp.101-119, 2002.
- [38] J. A Bishop and H. M. Inderbitzen, "Peer acceptance and friendship: An investigation of their relation to self-esteem,"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15, No.4, pp.478-489, 1995.
- [39] 이영식, "사회유대의 신념요인이 사이버 불링 가해 현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호, pp.256-262, 2016.
- [40] 박수정, 김도연,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또래 괴롭힘 예방프로그램의 효과 - 자기주장훈련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제47권, pp.69-91, 2014.
- [41] 제정희, 유형근,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의 집

단 따돌림 예방을 위한 놀이치료활용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아동교육*, 제21권, 제1호, pp.285-300, 2013.

저 자 소 개

김 부 경(Bu Kyung Kim)

정회원



- 2014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학사)
  - 2016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석사)
  - 2016년 3월 ~ 현재 :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사이버불링, SNS, 청소년심리, 학교폭력

한 윤 선(Yoonsun Han)

정회원



- 2002년 : Wesleyan University (학사)
  - 2006년 : Harvard University(석사)
  - 2012년 : Univ. of Michigan(박사)
  - 2013년 ~ 현재 :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학교폭력, 청소년 문제와 보호